

# 고등학교 작문 교과서의 비교

이 은 경\*

## 1. 머리말

작문이란 필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감상을 글로 표현하는 행위이다.<sup>1)</sup> 자신의 생각이나 감상을 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연습이나 훈련이 필요한데, 그러한 연습이나 훈련은 어느 교과 과정에서나 대체로 교재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

교재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교재는 교과서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과 과정에는 작문 과목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어 교과서가 작문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교과 과정에는 국어 과목과는 별도로 작문 과목이 설정되어 있고 작문 교과서도 다양하게 출판되어 있다. 대학교의 교과 과정에는 교양 필수나 선택 과목으로 국어·작문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독자적인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교과 과정을 따른다면 대학의 작문 교육은 고등학교의 작문 교육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등학교의 작문 교육과 대학교의 작문 교육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현행 고등학교 작문 교과서의 체제를 검토하여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문 교육의 중심 내용과 방향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현재 출판되어 있는 고등학교 작문 교과서는 교육부의 제6차 교육 과정

---

\* 동경외대 강사.

1) 필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감상을 표현한 행위의 결과물, 즉 글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에 의한 것으로 이들 가운데 8종의 작문 교과서를 검토의 대상으로 하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sup>2)</sup>

- 권두환(1996), 『고등 학교 작문』, 도서출판 태성.
- 김용직·박민수(1996), 『고등 학교 작문』, (주)천재교육.
- 성낙수(1996), 『고등 학교 작문』, (주)신원문화사.
- 이상태(1996), 『고등 학교 작문』, 형설출판사.
- 이익섭(1996), 『고등학교 작문』, 학연사.
- 정대립·주경희(1996), 『고등 학교 작문』, 태림출판사.
- 최웅·김진세·유태수·김용구(1996), 『고등 학교 작문』, 청문각.
- 성기조(1997), 『고등 학교 작문』, 학문사.

본고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작문 교과서의 체제이다. 교재는 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료이므로, 작문 교육을 하는 쪽에서 보면 학생들에게 학습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선택한 내용이 교재에 투영되어 있고 작문 교육을 받는 쪽에서 보면 학습해야 할 내용이 교재 속에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sup>3)</sup> 그러므로 체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에 따라 작문 교육의 과정이나 방식이 결정된다.

작문 교과서는 대개 비슷한 체제를 갖추고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차이를 보인다. 본고에서는 대상 작문 교과서 체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항목별로 비교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전체적인 체제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어서 세부적인 체제의 차이를 비교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비교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현행 작문 교과서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도 본고의 목적에 포함된다. 아울러 연습 문제나 예문의 유형과 작문을 보는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도 주목하고자 한다.

교육부의 7차 교육 과정에 따르면 작문은 과정 중심의 활동으로 이해된

2) 제6차 교육과정에서 채택된 작문 교과서는 모두 12종이나 필자가 대형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은 8종이므로 이들만을 검토의 대상으로 한다. 앞으로는 표기의 편의상 이 교과서들을 '권두환(1996), 김용직(1996), 성낙수(1996), 이상태(1996), 이익섭(1996), 정대립(1996), 최웅(1996), 성기조(1997)'로 표시하기로 한다.

3) 국어 교재의 기능에 대한 논의는 이성영(1995: 375~377)을 참조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 과정에 맞추어 앞으로 작문 교재가 개편되리라 생각되는데 이러한 개편에 더해서 어떤 점이 작문 교과서에 반영되는지 작문의 교육에 효율적인지도 논의해 보고자 한다.

## 2. 상위 체제의 비교

현행 고등학교 작문 교과서는 작문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있다. 검토 대상 작문 교과서의 단원 구성을 살펴보면 <표1>과 같다.

### <표1> 작문 교과서의 단원 구성

작문 교과서의 체제는 부록을 제외하면 대체로 6단원 내지는 8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목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든 작문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작문의 특성’, ‘작문의 절차’, ‘작문의 단위’, ‘진술 방식’, ‘표현 방식’, ‘작문의 실제’ 등의 여섯 가지이다. ‘작문의 특성’은 의사 표현 행위로서의 작문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 단원이다. 작문의 절차, 작문의 단위, 진술 방식, 표현 방식 등을 ‘작문의 원리’로 둑을 수 있는데, 작문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문을 하는 과정에서 필자가 지켜야 할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 단원들이다. ‘작문의 실제’는 작문의 특성 및 작문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작문 기능 신장을 위하여 실제로 작문 행위를 체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단원이다.<sup>4)</sup> 그밖에 일부 교과서에서는 ‘퇴고’나 ‘작문의 태도’, ‘좋은 글의 길’에 관련된 단원을 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의 단원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교과서마다 내용을 배열하는 순서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sup>5)</sup>

권두환(1996) : (1) → (3) → (2) → (5) → (4) → (6)

김용직(1996) : (1) → (2) → (3) → (5) → (4) → (6)

성낙수(1996) : (1) → (2) → (3) → (4) → (5) → (6) → (7)+(8)<sup>6)</sup>

이상태(1996) : (1) → (2) → (3) → (4) → (5) → (6)

이익섭(1996) : (1) → (3) → (2) → (4) → (5) → (6) → (9)

정대림(1996) : (1) → (2) → (3) → (4) → (5) → (6)

최 응(1996) : (1) → (3) → (2) → (4) → (5) → (7) → (6)

성기조(1997) : (1) → (2) → (3) → (4) → (5) → (7) → (6) → (8)

4) 대부분의 교과서가 평면적으로 단원을 배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익섭(1996)은 8개의 단원을 ‘작문의 특성’, ‘작문의 원리’, ‘작문의 실제’의 3부로 묶어서 제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모든 교과서가 이러한 3분 체제를 수용하고 있으므로 차례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더 효과적인 듯하다.

5) 비교의 편의상 ‘작문의 특성’을 ‘(1)’, ‘작문의 절차’를 ‘(2)’, ‘작문의 단위’를 ‘(3)’, ‘진술 방식’을 ‘(4)’, ‘표현 방식’을 ‘(5)’, ‘작문의 실제’를 ‘(6)’, ‘퇴고’를 ‘(7)’, ‘작문의 태도’를 ‘(8)’, ‘좋은 글의 길’을 ‘(9)’로 표시하기로 한다.

6) '(7)+(8)'에서 '+'로 표시한 것은 두 가지 내용이 한 단원 안에 기술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위의 순서를 보면 '(1)작문의 특성'에 해당하는 내용을 맨 앞에 둔 것은 차이가 없다. 그러나 '(2)작문의 절차'와 '(3)작문의 단위'의 배열 순서에는 차이가 있다. '작문의 절차'는 주제 선정, 자료 수집, 개요 작성, 집필 등을 다룬 단원이고, '작문의 단위'는 단어, 문장, 문단 등을 다룬 단원이다. '작문의 절차'를 다룬 후 '작문의 단위'를 다루고 있는 교과서는 5종이고, '작문의 단위'를 다룬 후 '작문의 절차'를 다루고 있는 교과서는 3종이다. 전자는 작문을 하기 위해서는 글을 쓰는 과정을 먼저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일 것이고, 후자는 작문을 하기 위해서는 글을 쓰는 과정보다는 글의 구성 단위를 먼저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일 것이다. 전자는 우선 글을 쓰는 것부터 익힌 후에 단어, 문장, 문단 등의 오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후자는 처음부터 오류를 범하지 않고 정확하게 글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어나 문장부터 연습하여 점진적으로 문단까지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sup>7)</sup>

'(4)진술 방식'과 '(5)표현 방식'의 배열 순서에도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설명, 논증, 묘사, 서사 등의 진술 방식을 먼저 익힌 후 수사법이나 문체 등의 표현 방식을 익히도록 배열되어 있는데, 권두환(1996), 김용직(1996)에서는 표현 방식을 진술 방식의 앞에 배열한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다른 교과서는 진술 방식을 익힌 뒤 수사법이나 문체를 익히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결과일 것이고, 이 두 교과서는 수사법이나 문체를 먼저 익히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결과일 것이다.

공통된 단원은 아니지만 '(7)퇴고'와 '(8)작문의 태도'의 배열에도 차이가 있다. 성나수(1996)에서는 둘을 합쳐 '(6)작문의 실제' 뒤에 배열하였고, 성기조(1997)에서는 '작문의 실제' 앞에는 '퇴고'를 뒤에는 '작문의 태도'를 배열하였다. 최웅(1996)에서는 '퇴고'만을 '작문의 실제' 앞에 배열하고 있다.

7) 작문의 단위를 먼저 학습하도록 되어 있는 교과서의 경우도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는데 권두환(1996), 이익섭(1996)에서는 '단어, 문장, 문단'을 익힌 후에 '작문의 절차'를 익히도록 되어 있고, 최웅(1996)에서는 '단어, 문장'을 익힌 후에 '작문의 절차'를 익히고 그 다음에 '문단'을 익히도록 되어 있다. 문단을 작문의 단위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견해와 달리 최웅(1996)은 개요 작성 후에 문단을 다루고 있어 특이하다.

‘작문의 태도’를 마지막에 배열한 점은 일치하지만 ‘퇴고’를 ‘작문의 실제’ 앞에 배열하느냐, 뒤에 배열하느냐 하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작문의 실제와 퇴고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되는데, 작문의 실제까지를 글 쓰는 과정에 포함시키는 입장에서는 퇴고를 그 뒤에 배열한 것이고, 글 쓰는 과정이 모두 끝난 후에 작문의 실제를 보이는 입장에서는 퇴고를 작문의 실제 앞에 배열한 것으로 보인다.

### 3. 하위 체제의 비교

#### 3.1. 작문의 특성

‘작문의 특성’ 단원에서는 의사 표현 행위로서의 작문에 대한 이해가 학습의 중심 내용이 된다. 이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빈도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8)</sup>

6회 : ① 언어의 기능, ② 사고와 표현, ③ 작문의 상황

4회 : ④ 좋은 글의 요건

3회 : ⑤ 작문의 중요성, ⑥ 작문의 기능

2회 : ⑦ 글이란 무엇인가, ⑧ 문제 해결의 과정, ⑨ 작문의 태도와 습관, ⑩ 작문의 수련

1회 : ⑪ 작문 활동의 요소

위의 내용을 보면 ‘작문의 특성’ 가운데 ‘언어의 기능, 사고와 표현, 작문의 상황’ 등을 다룬 교과서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어의 기능’에서는 의사 표현 행위로서의 작문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 ‘사고와 표현’에서는 사고 기능과 표현 기능의 특성과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작

---

8) 여기서 제시하는 빈도는 해당 항목이 8종의 교과서에서 다루어진 횟수를 나타낸 것이다. 즉 ‘6회’는 8종 가운데 6종의 교과서에서 다루어졌음을 의미한다. 한편 하위 체제의 구성 요소들에는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①, ②, ③’ 등의 번호를 붙이기도 한다.

문의 상황'에서는 글을 쓰는 목적, 글을 쓰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예상 독자의 요구와 필자의 입장, 글의 주제 및 내용이 작문의 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해하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각 교과서별로 위의 항목을 배열한 순서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권두환(1996) : ① → ⑤ → ⑧ → ⑨ → ③ → ④

김용직(1996) : ⑤ → ⑥ → ⑪ → ④ → ③

성낙수(1996) : ① → ② → ⑤ → ④ → ③

이상태(1996) : ① → ⑦ → ⑥ → ② → ④ → ⑩

이익섭(1996) : ① → ② → ③ → ⑩

정대림(1996) : ① → ② → ③ → ⑨

최웅(1996) : ⑦ → ② → ①

성기조(1997) : ⑥ → ② → ⑧ → ③

위의 배열 순서를 보면 '①언어의 기능'을 단원의 맨 앞에 둔 교과서가 5종이다. 이는 작문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언어의 기능을 이해해야 한다고 판단한 교과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 '⑤작문의 중요성', '⑦글이란 무엇인가', '⑥작문의 기능' 등을 맨 앞에 배열한 교과서도 있다. 한편 '②사고와 표현'을 두 번째로 둔 교과서가 5종인데, 이는 언어의 기능을 이해한 다음에는 사고와 표현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③작문의 상황'도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다루었으나 위치는 마지막에 둈 것이 3종, 마지막에서 두 번째에 둈 것이 3종이다. 주제나 독자 및 필자의 처지를 고려해야 하는 '작문의 상황'은 작문의 특성 중에서는 마지막에 익혀야 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한 결과이다. 한편 '④좋은 글의 요건'도 끝 부분에 배열되는데, 마지막에서 두 번째에 둈 것이 3종, 마지막에 둈 것이 1종이다.<sup>9)</sup>

그러므로 작문의 특성을 다룬 단원에서는 '①언어의 기능 → ②사고와 표현 → … → ④좋은 글의 요건 → ③작문의 상황'의 순으로 배열한 경우

9) 이익섭(1996)은 다른 교과서와 달리 '좋은 글의 요건'을 1단원의 하위 항목으로 다루지 않고 마지막 단원에서 독자적인 단원으로 처리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3.2. 작문의 절차

‘작문의 절차’ 단원에서는 한 편의 글을 쓰기 위하여 익혀야 할 단계가 학습의 중심 내용이 된다. 작문을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파악할 때 이 단원은 내용적 측면에 해당하는 것을 주로 다룬다.<sup>10)</sup> 이 단원에서 다룬 내용을 번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회 : ① 주제 ② 제재 ③ 개요

5회 : ④ 집필 ⑤ 퇴고

4회 : ⑥ 작문의 과정

1회 : ⑦ 단락의 구성

위의 내용을 보면 ‘작문의 절차’ 가운데 ‘주제, 제재, 개요’는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집필’, ‘퇴고’나 도입에 해당하는 ‘작문의 과정’도 이 단원에서 다룬 교과서가 대부분이나 다루지 않은 교과서도 있음을 알 수 있다.<sup>11)</sup>

작문은 어느 정도 순서대로 진행되는 선조적인 특성을 지닌다.<sup>12)</sup> 작문이 순서대로 진행된다고 할 때 대체적인 순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쓰기 전, 쓰기, 쓰기 후로 나눌 수도 있고 아이디어 생성, 아이디어 조직, 아이디어 표현, 아이디어 교정 등으로 나눌 수도 있으며, 구상, 기술, 퇴고 등으로 나눌 수도 있다(이재승 1997 : 377).

이러한 과정 중에서 필자가 주제를 잡고 글을 쓸 재료를 모으고 줄거리 를 작성하는 쓰기 전 과정은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었으나, 쓰기 과정과 쓰기 후 과정은 5종의 교과서에서만 다루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현행 작문

10) 작문을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나누는 것은 염창권(1997 : 191)을 참조 할 수 있다.

11) ‘단락의 구성’은 ‘작문의 절차’에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2) 물론 작문의 과정은 한편으로는 동시적, 회귀적 특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는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교과서에서는 쓰기 과정과 쓰기 후 과정보다는 쓰기 전 과정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쓰기 전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면 쓰기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위의 내용을 각 교과서에서 배열한 순서는 다음과 같다.

권두환(1996) : ① → ② → ③ → ④ → ⑤

김용직(1996) : ⑥ → ① → ② → ③ → ④ → ⑤

성낙수(1996) : ⑥ → ① → ② → ③

이상태(1996) : ① → ② → ③ → ④ → ⑤

이익섭(1996) : ① → ② → ③ → ④ → ⑤

정대림(1996) : ⑥ → ① → ② → ③ → ④ → ⑤

최웅(1996) : ① → ② → ③ → ⑦

성기조(1997) : ⑥ → ① → ② → ③

위의 배열 순서를 보면 대체로 ‘①주제 → ②제재 → ③개요 → ④집필 → ⑤퇴고’의 순서를 지켰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도입에 해당하는 ‘⑥작문의 과정’을 다룬 경우에는 맨 앞에 배열하여 작문의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 3.3. 작문의 단위

‘작문의 단위’는 작문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작문의 구성 단위를 익히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단원이다. 작문을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파악할 때 이 단원은 형식적 측면에 해당하는 것을 다룬다. 이 단원에서 다룬 내용을 빈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회 : ① 문단

7회 : ② 문장

6회 : ③ 단어

3회 : ④ 조직 및 구성

‘문단’은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었고, ‘문장’은 7종의 교과서에서 다루었으며, ‘단어’는 6종의 교과서에서 다루었다. 이 밖에 ‘조직 및 구성’은 3종의 교과서에서 다루었다. 이는 현행 작문 교과서들이 작문의 단위 중에서 ‘문단’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문장’과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 내용을 각 교과서에서 배열한 순서는 다음과 같다.

권두환(1996), 이상태(1996), 이익섭(1996), 정대림(1996), 최웅(1996)

: ③ → ② → ①

김용직(1996) : ④ → ①

성낙수(1996) : ④ → ② → ①

성기조(1997) : ③ → ② → ① → ④

위의 순서를 보면 ‘③단어 → ②문장 → ①문단’의 순서로 배열한 것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처음부터 오류를 범하지 않고 정확하게 작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어, 문장, 문단의 순서로 점진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배열한 것이다. 이상태(1996)은 다른 교과서에 비해 ‘단어, 문장, 문단’을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작문의 형식적인 측면인 문법 영역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김용직(1996)은 ‘작문의 구성’이라는 제목 아래 ‘조직 및 구성’과 ‘문단’만을 다루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작문의 일차적인 구성 단위가 문단이고 글의 조직은 결국 문단의 배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타당성이 인정되기도 한다.

### 3.4. 진술 방식

‘진술 방식’ 단원에서는 고전적 수사 이론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글의 형태가 학습의 중심 내용이 된다. 이에는 설명, 논증, 묘사, 서사 등이 속하는데 각 교과서의 ‘진술 방식’ 단원에서 다루어진 내용의 빈도는 다음과 같다.

8회 : ① 설명, ② 논증, ③ 서사

7회 : ④ 묘사

2회 : ⑤ 설득

1회 : ⑥ 목적과 진술 방식

모든 교과서에서 다른 내용은 ‘설명, 논증, 서사’이고 7종의 교과서에서 다른 내용은 ‘묘사’이다. 대체로 학생들이 익혀야 하는 글의 유형은 ‘설명, 논증, 서사, 묘사’의 네 가지로 압축되는 셈이다.<sup>13)</sup> 한편 ‘설득’의 방법이 2종의 교과서에 포함된 점이 눈에 띄는데 ‘설득’의 유형에 속하는 글은 독자를 설득시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논증’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 듯하다. ‘목적과 진술 방식’은 ‘진술 방식’ 단원의 도입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를 채택한 교과서는 1종뿐이다.

각 교과서 별로 위의 내용을 배열한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권두환(1996), 정대립(1996), 최웅(1996), 성기조(1997) : ① → ② → ④ → ③

김용직(1996) : ① → ⑤ → ② → ③

성낙수(1996) : ① → ④ → ② → ③

이상태(1996) : ④ → ③ → ① → ② → ⑤

이익섭(1996) : ⑥ → ① → ② → ④ → ③

위의 순서를 보면 ‘①설명 → ②논증 → ④묘사 → ③서사’의 순으로 배열한 교과서가 5종이므로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김용직(1996)이나 성낙수(1996)도 ‘설명’을 가장 먼저 다루었다. 진술 방식 중에서는 ‘설명’이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먼저 익혀야 할 내용으로 선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김용직(1996)은 ‘설명’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석과 묘사, 분류와 예시와 정의, 비교와 대조와 대립’ 등의 세 절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으므로 ‘설명’에 가장 중점을 둔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설명’ 다음으로 ‘논증, 묘사, 서사’의 순으로 익혀야 할 내용을 배열하였는데, ‘논증, 묘사, 서사’의 배열은 교과서마다 조금씩 다르다. 성낙수(1996)에서는 논증보다 묘사를 앞에 배열했으므로 논증보다는 묘사가 더 기본적인 것으로 파악한 듯

13) 그런데 실제로 학생들에게 작문을 시킬 때는 네 가지 대표적인 유형이 서로 겹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설명문이나 논증문을 쓸 때는 자연스럽게 서사나 묘사의 방법이 동원되기 때문이다.

하고, 이상태(1996)에서는 ‘묘사, 서사’를 ‘설명, 논증’의 앞에 배열하였으므로 ‘묘사, 서사’를 ‘설명, 논증’보다 기본적인 것으로 파악한 듯하다.

### 3.5. 표현 방식

‘표현 방식’은 수사법과 문체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 단원이다. ‘표현 방식’에서 다룬 내용의 빈도는 다음과 같다.

8회 : ① 수사법

7회 : ② 문체

2회 : ③ 단어의 선택, ④ 문장의 표현, ⑤ 보조 자료

‘수사법’은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었고 ‘문체’는 7종의 교과서에서 다루었으므로, 이 단원은 수사법과 문체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현 방식’ 단원에서 다룬 내용의 배열 순서는 다음과 같다.

권두환(1996), 최웅(1996) : ① → ②

김용직(1996) : ③ → ④ → ② → ①

성낙수(1996) : ③ → ④ → ① → ② → ⑤

이상태(1996) : ①

정대립(1996) : ① → ②

성기조(1997) : ① → ② → ⑤

이의섭(1996) : ② → ①

위 배열 순서를 보면 ‘②문체’보다 ‘①수사법’을 먼저 다룬 것이 5종이므로 대부분 수사법을 먼저 익힌 후에 문체를 익히도록 배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문체는 전체 글과 관련되는 내용이고 수사법은 글의 일부분과 관련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배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상태(1996)과 정대립(1996)은 수사법을 세 절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으므로 다른 교과서에 비하여 수사법에 중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교과서가 ‘작문의 단위’ 단원에서 단어와 문장을 다룬 것과는 달리 김용직(1996)은 ‘단어’와 ‘문장’을 이 단원에서만 다루고 있고, 성낙수(1996)은 ‘단어’를 이 단원에서만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단어’와 ‘문장’이 작문의 구성 단위가 아니라 표현과 관련되는 문제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단어와 문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점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단어와 문장은 작문의 구성 단위이기도 하지만 단어와 문장을 효과적으로 구사하는 것은 표현의 문제와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 3.6. 작문의 실제

‘작문의 실제’는 여러 가지 종류의 글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그러한 글을 실제로 쓸 수 있도록 연습시키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작문의 실제’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빈도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8회 : 일기, 편지, 기행문, 시, 소설, 수필

7회 : 전기문, 보고문, 기사문, 논설문

6회 : 감상문

5회 : 실용문(소개장, 안내장, 초청장 등), 설명문, 광고문

4회 : 연설

1회 : 논문, 실화, 문단 쓰기의 실제, 글쓰기의 태도와 습관

일상 생활에서 쓰게 되는 글의 종류인 ‘일기, 편지, 기행문’과 문학의 갈래인 ‘시, 소설, 수필’이 모든 교과서에서 나란히 상위에 올라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이 밖에 ‘전기문, 보고문, 기사문, 논설문, 감상문’ 등도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다.

각 교과서에서 위의 내용을 배열한 방식과 제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일차적으로는 한 단원 내에서 모든 종류의 글을 제시한 경우와 두 단원으로 나누어 제시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이차적으로는 분류의 기준을 제시한 경우와 제시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 (1) 한 단원 내에서 배열한 것

가. 분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글의 종류를 절 제목으로 배열한 것

권두환(1996) : 일기—편지—설용문—기행문—감상문—전기문—보고문—기  
시문—설명문—논설문—시—소설—수필

이상태(1996) : 일기와 편지—기행문—기사문—보고서—실화와 전기—수필  
—연설문—시와 소설

이익섭(1996) : 일기—편지—수기와 전기—기행문—독후감—연설문—논설  
문—수필—시—소설

나. 분류 기준을 절 제목으로 배열하고 그에 속하는 글의 종류를 항 제목으로  
배열한 것

성낙수(1996) : 예술문—설용문—학술문

최웅(1996) : 나를 위한 글—사회를 위한 글—독자를 위한 글

김용직(1996) : 문단 쓰기의 실제—생활에 필요한 글쓰기—정보 및 사실  
전달을 위한 글쓰기—체험 및 감동 전달을 위한 글쓰기—  
논증 및 설득을 위한 글쓰기—친교 및 정서 표현을 위한  
글쓰기—문예문 쓰기—글쓰기의 태도와 습관

성기조(1997) :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논증 및 설득을 위한 글쓰기—  
친교 및 정서 표현을 위한 글쓰기—문학적인 글쓰기

(2) 두 단원으로 배열한 것(분류 기준을 단원 제목으로 배열하고 그에 속하는  
글의 종류를 절 제목으로 배열함)

정대립(1996) : VII 전달의 글(생활에 필요한 글—설명문과 논설문—보고서  
와 기사문—전기문과 기행문)

VIII 표현의 글(편지와 일기—감상문—시와 소설—수필)

권두환(1996), 이상태(1996), 이익섭(1996)은 특별한 기준으로 글을 분류  
하지 않고 글의 종류대로 배열하는 (1가)의 방식을택하고 있다. 앞부분에  
는 개인적인 글을 배열하고 중간에는 비교적 실용적인 글을 배열하였으며  
뒷부분에는 문예문을 배열하고 있는 점도 이 교과서들의 공통점이다.

반면 성낙수(1996), 최웅(1996), 김용직(1996), 성기조(1997)은 나름대로  
의 기준을 사용하여 분류하는 (1나)의 방식을택하고 있다. 성낙수(1996)은  
'예술—설용—학술'이라는 기준을 사용하여 글의 특성에 따라 나누었고, 최  
웅(1996)은 '나—사회—독자'라는 기준을 사용하여 글이 누구를 위하여 쓰  
여지는가에 따라 나누었다. 김용직(1996)은 '생활—정보 및 사실 전달—체

험 및 감동 전달–논증 및 설득–친교 및 정서 표현–문예문’이라는 기준을 사용하여 글을 쓰는 목적에 따라 나누었다. 한편 앞에는 ‘문단 쓰기의 실제’를, 뒤에는 ‘글쓰기의 태도와 습관’을 덧붙인 것이 다른 교과서들과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성기조(1997)은 김용직(1996)과 유사하게 ‘정보 전달–논증 및 설득–친교 및 정서 표현–문학’이라는 기준을 사용하여 글을 쓰는 목적에 따라 나누었다.

한편 정대림(1996)은 글의 종류를 ‘전달’과 ‘표현’의 두 단원으로 나누어 배열하여 (2)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는 위에서 글을 쓰는 목적에 따라 글의 종류를 나눈 김용직(1996)이나 성기조(1997)과 유사한 처리방식이지만 훨씬 더 분명하게 단원 별로 글의 종류를 나누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그러나 다른 단원과의 균형을 고려한다면 글의 종류에 관한 단원만 둘로 나누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3.7. 부록

작문 교과서의 부록은 글쓰기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알아두면 좋을 사항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작문 교과서의 부록에 수록된 내용을 빈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8회 : ① 맞춤법
- 7회 : ② 찾아보기
- 6회 : ③ 연습문제 풀이
- 5회 : ④ 띄어쓰기
- 4회 : ⑤ 문장 부호
- 3회 : ⑥ 원고지 사용법, ⑦ 예문 목록
- 2회 : ⑧ 편집과 교정, ⑨ 되살려 쓸 우리말
- 1회 : ⑩ 작문 평가표, ⑪ 서식

‘맞춤법’은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다. 맞춤법과 관련한 ‘띄어쓰기’나 ‘문장 부호’도 별도로 다룬 것이 5종이나 되며, 맞춤법과 표준어를 함께 다룬 교과서도 1종 있다. 그 밖에 ‘찾아보기’와 ‘연습문제 풀이’ 등이 비교적 많은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 ‘예문 목록’은 사실상 필수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의외로 3종의 교과서에만 수록되어 있다.

각 교과서에서 위의 내용을 배열한 순서는 다음과 같다.

권두환(1996) : ① → ④ → ⑤ → ⑥ → ⑧ → ⑩ → ⑪ → ③ → ②

김용직(1996) : ① → ⑥ → ⑨ → ② → ③

성낙수(1996) : ⑤ → ④ → ① → ① → ②

이상태(1996) : ⑥ → ① → ④ → ⑧ → ⑦

이익섭(1996) : ⑤ → ④ → ① → ⑦ → ③ → ②

정대림(1996) : ① → ① → ③ → ⑦ → ②

최웅(1996) : ① → ④ → ⑤ → ① → ③ → ②

성기조(1997) : ① → ① → ⑨ → ③ → ②

배열 순서를 보면 ‘⑤문장부호, ⑥원고지 사용법’을 앞세운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①맞춤법’을 맨 앞에 배열하고 있다. 또한 성낙수(1996), 정대림(1996), 최웅(1996), 성기조(1997)에서는 맞춤법을 두 항목에 걸쳐서 제시하고 있다. 맨 앞에 배열한 것이나 두 항목에 걸쳐서 배열한 것은 그만큼 작문 교과서들이 맞춤법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부록의 마지막에는 ‘②찾아보기’를 배열한 경우가 6종으로 작문 교과서에서는 ‘③연습 문제 풀이’나 ‘⑦예문 목록’을 제외하면 ‘②찾아보기’를 마지막에 배열한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4. 연습 문제와 예문의 비교

### 4.1. 연습 문제

대상 작문 교과서는 모두 연습 문제를 싣고 있다. 이는 작문 교과서의 목표가 학생들에게 작문에 관한 내용을 이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연습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연습 문제는 다음 몇 가지 유형으로 요약된다.

- ① 해설한 내용을 토대로 더 생각하거나 조사하는 문제
- ② 해설한 내용을 정리하는 문제
- ③ 주어진 지문을 읽고 해설한 내용을 정리하는 문제
- ④ 주어진 지문에 해설한 내용을 적용하는 문제
- ⑤ 주제를 주거나 하여 작문 연습을 하는 문제
- ⑥ 주어진 지문을 읽고 주어진 대로 글을 쓰거나 수행하는 문제
- ⑦ 생활 속에서 조사하거나 관찰하는 문제

대체로 ①유형부터 ④유형까지는 해설한 내용과 관련되는 연습 문제이고, ⑤유형과 ⑥유형은 작문과 관련되는 연습 문제이며, ⑦유형은 조사하거나 관찰하는 연습 문제이다. 대상 작문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유형 중에서 어떤 것이 선택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편의상 1단원의 1절과 ‘문단’절의 연습 문제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우선 1단원 1절의 연습 문제는 <표2>와 같은 분포를 보인다.

<표2> 1단원 1절의 연습문제 유형

교과서 유형	권두환 (1996)	김용직 (1996)	성낙수 (1996)	이상태 (1996)	이익섭 (1996)	정대림 (1996)	최 용 (1996)	성기조 (1996)	종류/합
①유형	1	2	1	6	1	5	-	1	7/17
②유형	4	2	1	-	1	2	2	-	6/12
③유형	1	4	-	-	-	-	1	2	4/8
④유형	-	-	2	1	1	-	-	2	4/6
⑤유형	-	1	1	-	1	2	1	-	5/6
⑥유형	-	3	1	-	-	-	-	1	3/5
⑦유형	-	-	1	-	2	2	-	-	3/5
종류/합	3/6	5/12	6/7	2/7	5/6	4/11	3/4	4/6	7/59

1단원의 1절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연습 문제는 ①유형, ②유형, ③유형인데 모두 해설한 내용과 관련되는 문제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이 선호된 것은 이 부분이 교과서의 처음이므로 대부분 내용을 해설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대상 교과서 중에서 ①유형을 선호한 것은 이상태(1996)과 정대림(1996), ②유형을 선호한 것은 권두환(1996), ③유형을 선호한 것은 김용직(1996)이다. 한편 연습 문제의 유형이 비교적 다양한 것

은 김용직(1996), 성낙수(1996), 이익섭(1996)이며, 연습 문제의 수가 비교적 많은 것은 김용직(1996)과 정대림(1996)이다.

다음은 ‘문단’을 다룬 절의 연습 문제를 유형별로 분석한 것이다. ‘문단’은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었으므로 연습 문제의 유형을 비교할 수 있었다.

<표3> ‘문단’ 절의 연습 문제 유형

교과서 유형	권두환 (1996)	김용직 (1996)	성낙수 (1996)	이상태 (1996)	이익섭 (1996)	정대림 (1996)	최웅 (1996)	성기조 (1997)	종류/합
①유형	-	1	-	-	-	-	1	-	2/2
②유형	1	1	-	-	-	2	1	-	4/5
③유형	-	-	-	-	-	-	-	1	1/1
④유형	4	4	4	2	3	3	4	4	8/28
⑤유형	1	2	1	4	1	2	1	2	8/14
⑥유형	-	-	-	-	1	1	1	3	4/6
⑦유형	-	-	-	-	1	-	1	-	2/2
종류/합	3/6	4/8	2/5	2/6	4/6	4/8	6/9	4/10	/58

<표3>을 보면 문단에 관한 절에서는 대부분 ④유형의 연습 문제, 즉 주어진 지문에 해설한 내용을 적용하는 유형의 문제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또한 ⑤유형의 연습 문제, 즉 주제를 주거나 하여 작문 연습을 하는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타났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연습 문제가 많이 사용된 것은 문단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지문에 해설한 내용을 적용하거나 실제로 작문을 해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연습 문제의 유형이 비교적 다양한 것은 김용직(1996), 이익섭(1996), 정대림(1996), 최웅(1996), 성기조(1997)이고, 연습 문제의 수가 비교적 많은 것은 김용직(1996), 정대림(1996), 최웅(1996), 성기조(1997)이다.

이상에서 두 절을 대상으로 각 교과서의 연습 문제 유형을 비교해 보았다. 대체로는 해당 부분의 성격에 따라 연습 문제 유형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이든 비교적 다양한 유형의 연습 문제를 수록한 교과서로는 김용직(1996), 이익섭(1996)을 들 수 있고, 연습 문제의 수가 비교적 많은 교과서로는 김용직(1996)과 정대림(1996)을 들 수 있다.

#### 4.2. 예문

작문 교과서는 자료 제시의 기능이 두드러지는 교재에 속하므로, 작문 교과서의 설명은 일종의 예시인 예문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분석 대상이 되는 작문 교과서 역시 모두 예문을 싣고 있었다. 예문은 주로 설명을 하기 위한 예시로서 사용되었는데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전범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써야 한다는 의미와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모두 예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수정하거나 덧붙이는 연습을 위해서도 예문이 제시되어 있다.

예문을 비교하는 작업의 편의를 위해 본고에서는 예문을 우선 일반인의 예문, 학생의 예문, 출전이 밝혀져 있지 않은 예문으로 나누었다. 일반인의 예문은 현대어 예문, 고전 원문의 현대어역 예문, 한문 번역문, 외국어 번역문, 고전 원문으로 더 세분하였다.<sup>14)</sup>

<표4> 예문의 유형

예문의 유형		권두환	김용직	성낙수	이상태	이익섭	정대림	최 용	성기조	합 (비율%)
일반인 예 문	현대어예문	109	116	103	107	94	176	151	128	984(65.7)
	현대어역	1	3	3	-	-	5	2	3	17(1.1)
	한문번역	-	1	7	-	1	10	-	6	25(1.7)
	외국어번역	5	3	14	11	9	14	6	4	66(4.4)
	고전원문	2	-	-	-	-	-	-	-	2(0.1)
학생 예문	6	35	10	10	34	22	20	21	158	158(10.6)
출전 미상	35	17	32	59	26	22	14	41	246	246(16.4)
합	158	175	169	187	164	249	193	203	1498	1498(100)

<표4>를 보면 예문의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일반인이 현대어로 쓴 글로서, 전체 예문의 65.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출전 미상의 글로서, 전체 예문의 16.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대개 출전 미상의 글은 틀린 부분을 지적하거나 고치게 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 즉 훈련을 위해 저자가 만들었거나 기준의 예문을 수정한 경우로 파악된다.

14) 현대어역 예문에는 예전의 표기를 현대 표기로 바꾼 것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실제의 예문인데도 출전을 밝히지 않은 글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실용문의 경우, 예를 들어 편지, 일기 따위나 초대장 따위를 설명하는 경우에는 대개 출전이 밝혀지지 않은 예문이 나타나는데 이는 실제로 이들 예문을 구해서 싣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많은 것은 학생 예문인데, 전체의 10.6%를 차지하고 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작문 교과서임에도 학생 예문이 양적으로 많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김용직(1996)과 이익섭(1996)이 비교적 많은 편이어서 김용직(1996)은 학생 예문이 전체 예문의 20%, 이익섭(1996)은 20.7%를 차지하고 있다. 두 교과서 모두 현대어로 된 예문 중에서 학생 예문이 차지하는 비율을 검토해 보아도 30%가 넘으므로 현행 교과서 중 학생 예문이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작문 교과서들은 학생들의 글을 예문으로 삼는데 인색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글을 싣는 것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작문 연습에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작문 교과서의 예문에 한문 번역문이나 외국어 번역문이 실린 것도 보인다. 또한 우리말로 되어 있는 것이라도 현대어가 아닌 경우에는 현대어로 번역하거나 현대 표기로 바꾼 예문도 양은 적지만 포함되어 있다. 이는 작문의 예문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번역된 글도 우리 글이라고 판단하여 실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문의 출전을 표시하는 경우는 대부분 저자와 제목의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신문의 경우에는 신문사 이름과 발간일을 표시한 교과서도 있고 이를 밝히지 않은 교과서도 있다. 출전이 있는 예문의 경우에 책 뒤에 이를 목록으로 다시 제시해 놓은 교과서가 있다. 김용직(1996), 이상태(1996), 이익섭(1996), 정대립(1996)은 인용된 예문의 출전을 따로 교과서 뒷부분에 실어 놓았다. 이상태(1996), 이익섭(1996)은 완전한 서지 사항을 제시하였으나 김용직(1996), 정대립(1996)은 본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저자와 제목만 표시해 두었다. 예문의 출전에 대해 완전한 서지 사항을 제시해 주는 것은 학생들이 원문 전체를 확인하고자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필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 5. 전체적인 검토

작문에 대한 모형은 크게 결과 중심 모형과 과정 중심 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sup>15)</sup> 결과 중심의 작문 모형은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는데, 이 방식은 전통적으로 작문을 정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온 것과 관련된다. 결과 중심 모형의 대표적인 것은 '예비 작문하기, 작문하기, 다시 쓰기 모형'으로서 선조적인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이 모형은 글을 쓰는 필자의 내부에서 작문의 과정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작문의 과정을 관찰하는 입장에서 작문의 과정을 바라본 것이다. 작문의 결과에 기반을 둔 모형은 작문의 결과에 대해서만 말을 할 뿐 작문 그 자체에 대해서는 말해주는 것이 거의 없다고 평가되어 왔다.

최근에는 과정 중심 모형이 등장하였는데, 이는 작문의 과정을 외부인의 관점이 아니라 필자의 내부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과 '사고하기, 조직하기, 작문하기, 퇴고'의 모든 단계가 작문 과정에서 상호 작용적이며 역동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는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는 작문 행위가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조직하고 표현하는 심리적 활동임과 동시에 지식을 구조화하는 인지 작용이라고 본다. 즉 작문을 여타의 다른 활동과 유사한 단계를 통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신현재·이재승 1994). 작문의 과정에서 필자가 수행하게 되는 문제 해결 과정은 사람들이 작문 이외의 다른 학문 분야 또는 일상 생활에서 수행하게 되는 문제 해결 과정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과정과 마찬가지로 작문의 과정에서도 필자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기준 지식과 여러 가지 문제 해결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박영목 1996 : 428).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작문을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 보는 관점을 도입하였다(교육부 1998 : 66~73, 교육부 1999 : 46~8). 작문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작문을 집필 행위로만 이해하는 경우 보다는 작문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가능하게 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sup>16)</sup>

15)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성영(1995 : 176~184)를 참조할 수 있다.

16) 원진숙(1999)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작문 실태를 조사하여 미숙한 필자와 능숙한 필자가 작문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능숙한 필자는 글

과정으로서의 작문이라는 관점은 현행 작문 교과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권두환(1996), 김용직(1996), 정대림(1996), 성기조(1997)이 과정으로서의 작문이라는 관점에서 쓰여진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김용직(1996)이 가장 분명하게 작문을 과정으로 기술하고 있다. 물론 다른 작문 교과서도 전혀 과정의 개념이 없이 쓰여진 것은 아니다. 원래 작문은 내용을 글로 표현하는 과정이므로 과정 중심으로 기술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다만 위의 교과서가 문제 해결로서의 과정을 더 분명히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작문을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경우에는 문예문보다 실용문에 대하여 더 설득력이 생길 수 있다. 문예문도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는 있으나 실용문에 비하면 문제 해결로서의 성격이 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작문을 과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실용문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실제로 기존의 작문 교과서를 비교해 본 결과 작문을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교과서에서도 실용문에 대한 비중이 크게 높지는 않았다. 이는 전통적으로 작문이 문예문 중심으로 이해되어 온 것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인이 문예문을 쓰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존의 작문 교과서는 이러한 실생활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여 집필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생활에서 문예문과 실용문을 사용하는 비율을 정확하게 조사할 수는 없으나 일반인의 경우에는 문예문보다는 실용문을 쓰게 될 확률이 매우 높을 것이다. 물론 읽는 양에 비하면 쓰는 양이 절대적으로 적을 것이나 글을 쓰게 되는 경우만을 놓고 본다면 실용문 중심의 작문을 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기존의 작문 교과서에서 다른 실용문은 소개문, 안내문, 초청장, 광고, 보고서, 설명문, 기사문, 논설문, 연설문, 논문 등이다. 이를 실용문 중에서 광고, 기사문, 연설문 등은 실생활에서 쓰게 될 가능성이 적고 논설문, 논문 등도 실제로 쓰게 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

쓰기 과정 자체를 일련의 목표 지향적 활동으로 파악하지만 미숙한 필자는 앉은 자리에서 단번에 써 버리는 일회적인 행위로 파악한다고 한다. 즉 미숙한 필자는 작문을 집필 행위로만 파악하는 것이다.

소개문, 안내문, 초청장 등은 실제로 그러한 종류의 글을 직접 작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지 예문이 보다 구체적이다. 그에 비해 설명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문 제시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설명문은 광범위한 종류의 실제 글을 포함한다. 누구에게 뭔가를 설명하는 경우가 생기면 설명문을 작성하게 되는데 그 뭔가에 따라 매우 다양한 설명문을 작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작문 교과서는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듯하다. 실용문은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동기 부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작문에서는 특히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해설과 예문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각종 기계나 물건의 사용 안내서이다. 실제로 우리는 다양한 설명문을 대하게 되는데 그 설명문에 기술된 정보가 너무 부족하거나 사용자를 배려하지 않아서 설명문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독자를 배려하는 글쓰기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 학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연습을 하게 하면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글의 종류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요약이라고 하는 작문의 한 종류가 있다. 요약은 글의 종류는 아니지만 일반인이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작문 행위이다.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서 그것을 글로 쓰는 경우가 일반적인 작문이라고 한다면 이미 있는 글의 내용을 이해하여 그 중심 내용만을 간추려 새로운 글을 쓰는 것을 요약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에는 읽고 이해하는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작문에서는 대부분 요약을 다루지 않지만 실제로 읽는 행위는 자료 수집이라는 행위로 이미 작문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굳이 읽고 이해하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어 요약을 작문에서 배제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좋은 요약문을 만드는 것은 작문 능력과 직결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작문 교과서에 반영하면 좋을 것이다.

비슷한 과정으로 번역이 있다. 이미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영어로 된 글을 읽고 이해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읽고 이해한 것을 우리말로 표현하게 되면 번역이 되는 것이다. 번역은 대상 언어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우리말에 대한 이해가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번역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지만<sup>17)</sup> 그것을 고등학교 단계에서

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일반인의 경우에 순수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작문보다는 위에서 본 것처럼 이미 주어진 정보를 설명하거나 요약을 하거나 하는 일뿐만 아니라 외국어로 된 글을 우리말로 바꾸는 일 또한 적지 않게 경험한다고 할 때 번역문에 대한 교육도 작문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과 관련해서 지적할 것은 대부분의 작문 교과서가 설명을 위한 필요에서 번역문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다. 양적으로 매우 적기는 하지만 우리말 작문 교과서에 외국어 번역문이나 한문 번역문을 사용한다는 것은 특별히 그 예문이 가장 적절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번역이라도 외국어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때 우리말로 글을 쓰는 것을 가르치는 작문 교과서에서 굳이 외국어 번역문을 제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번역문을 제시할 때도 번역자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데 예문으로 제시된 것은 원문이 아니라 번역문이므로 그 예문은 원문을 번역한 번역자의 글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내용은 원문에서 가져온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말로 옮긴 것으로 우리 글이라고 해야 하며 그 글의 책임은 번역자가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자를 밝히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 6. 맷음말

이상에서 본고는 현행 고등학교 작문 교과서의 체제를 비교하여 그 특성을 파악해 보았으며 연습 문제와 예문의 유형 및 분포도 검토하였다. 아울러 작문을 보는 관점의 차이와 앞으로의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모든 작문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상위 체제는 ‘작문의 특

---

17) 장진한(1990), 김정우(1990)에서는 번역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번역문의 문제는 결국 대상 언어의 특성을 우리말에 맞게 바꾸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성, 작문의 절차, 작문의 단위, 진술 방식, 표현 방식, 작문의 실제' 등 여섯 단원이다. 각 단원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하위 항목들과 그 배열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작문의 특성 : 언어의 기능 → 사고와 표현 → 좋은 글의 요건 → 작문의 상황
- (2) 작문의 절차 : 주제 → 제재 → 개요 → 집필 → 퇴고
- (3) 작문의 단위 : 단어 → 문장 → 문단
- (4) 진술 방식 : 설명 → 논증 → 묘사 → 서사
- (5) 표현 방식 : 수사법 → 문체
- (6) 작문의 실제 : 생활문 → 실용문 → 문예문

현행 고등학교·작문 교과서에 수록된 연습 문제는 해설한 내용과 관련되는 유형, 작문을 하는 유형, 조사하거나 관찰하는 유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각 단원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유형이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작문 교과서에 수록된 예문 중에는 일반인이 현대어로 쓴 글이 전체 예문의 65.7%로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출전 미상의 글이 16.4%, 학생의 예문이 10.6% 순으로 수록되어 있었다.

한편 앞으로는 작문을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 보는 방향으로 작문 교과서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작문을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 보는 경우 문예문보다는 실용문의 비중이 높아지게 될 것이며 실용문 중에서도 특히 설명문을 다양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생들의 작문 교육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 참고문헌

- 교육부(1998), 『고등학교 교육 과정(I)』, 별책 4.
- 교육부(1999), 『집필상의 유의점』.
- 김도남(1997), 「독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작문 지도 방법」, 『국어수업방법』, 박이정.
- 김정우(1990), 「번역문에 나타난 국어의 모습」, 『국어생활』 21, 국어연구소.
- 박영복(1996), 「작문의 특성과 원리」, 『대학 국어 작문』, 흥익대학교 출판부.
- 신현재·이재승(1994), 『학습자 중심의 국어교육 : 그 원리와 방법』, 서광학술자료사.
- 염창권(1997), 「쓰기-교수 학습 모형」, 『국어수업방법』, 박이정.
- 원진숙(1999), 「대학생들의 글쓰기 실태와 지도 방안」, 『새국어생활』 9:1, 국립국어연구원.
- 이성영(1995), 『국어교육의 내용 연구』(국어교육연구소 연구총서 10), 서울대출판부.
- 이재승(1997), 「쓰기 과정에서의 자기 조정 능력 증진 방안」, 『국어수업방법』, 박이정.
- \_\_\_\_\_ (1997), 『국어교육의 원리와 방법』, 박이정.
- 장진한(1990), 「번역과 우리말」, 『국어생활』 21, 국어연구소.